

■ 안철수 집권 구상 '복지·정의·평화' 3대 키워드 들여다보니

① 성장 없는 복지·경제민주화 반대 ② 정치쇄신·개혁, 국민의 열망이다 ③ 평화 위해선 북과 경제교류 중요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복지' '정의' '평화'를 꼽아왔다.

안 원장은 지난 7월 펴낸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 "정의로운 복지국가" 혹은 "공정한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면서 "복지와 정의는 평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달성될 수 없다"며 정의·복지·평화를 3대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는 또 19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정치쇄신을 시대의 숙제로 제시하며 실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성장과 복지·경제민주화 선순환 돼야" = 안 원장은 성장을 배제한 경제민주화·복지 논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나 복지는 성장동력을 가진 상태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자전 거 바퀴 두 개와 같다고 본다"고 전

제한 뒤 "한국에서 끊임없이 성장 또는 일자리를 창출하며 재원이 경제민주화나 복지로 가고 다시 경제민주화 복지가 사람의 창의성을 불러일으켜 다시 혁신경제로 이전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게 정답이다"며 "이런 걸 빼고 경제민주화만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치쇄신·개혁, 시대의 숙제" = 그는 이날 출마 결심 배경으로 "경쟁투어"를 통해 확인한 정치쇄신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들었다.

그는 "새로운 정치가 들어서야 국민의 삶이 바뀔 수 있다"며 "정치개혁은 선거과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안 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부당하고 급급한 흑색선전, 이전투구를 계속한다면 서로 증오하고 지지자를 분열시키며 나아가 국민을 분열시킨다"며 "선거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있더라도 흑색선전

과 같은 낡은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넘어 미래를 위한 에너지로 바뀌어야 하며 그것이 통합의 시작점"이라며 "당선된다면 다른 후보들의 더 나은 정책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경청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며 "통합의 정치"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 원장은 기존 정당 정치에 대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정치는 중요하지만, (정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치권의 진정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며, 국민이 이에 동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열심히 선거활동을 한다"며 이 과정에서 양 정당도 제대로 된 개혁, 민의를 만드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화 체제 구축해야" = 안 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화에 대해 언급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지향하는 복지와 정의가 사회에 안착하려면 평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 "북한의 붕괴를 전제한 북핵정착은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평화를 훼손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경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교류협력으로 긴장완화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퍼주기' 논란 등 남남갈등을 유발했다"며 약간은 비판적 시각도 보여줬다.

이와 함께 안 원장은 안보 부문도 강조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화체제는 역시 안보와 균형을 맞출 때 실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검증의 벽' 넘을까

새누리, BW할값 인수 등 20가지 의혹 공세 예고... 안 "성실 답변"

정치신인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가도를 순항하기 위해서는 기성 정당과 언론의 전방위적인 검증공세의 벽을 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안철수연구수 대표 시절 신주인수권부사채(BW) 할값 인수와 산업은행 뇌물제공 의혹 등 20여 가지 이상의 의혹을 집중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안 원장이 안랩 대표이사 시절인 1999년 BW를 할값으로 인수, 1년 만에 주식으로 전환해 300여억원의 주식 평가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산업은행의 해당 관계자와 안랩(안철수연구소) 주주 등 30여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안 원장은 "발행시점 당시 외부 회계전문기관의 평가 금액을 받았으며, 금융당국의 규정을 모두 따랐을 뿐 아니라 최종 결정도 투자자들이 모두 모인 주주총회에서 의결했다"며 할값 인수의혹을 부인했다.

또 안 원장이 안랩 초창기인 1999년 산업은행에서 투자를 받으며 주식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안 원장은 산업은행이 안랩에 투자한 것은 1998년 12월 19일의 일로 로비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1988년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일명 딱지)을 부모도

움 받아 살 때 입주권 거래가 적법했는지,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도 논란을 일으켰다. 안 원장은 "축의금, 결혼자금 등을 모아 부모가 신혼집으로 마련해 준 것"이라면서도 "당시 과정에 대해 정확한 기억은 못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안 원장은 19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정당한 검증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할 생각이다"면서도 네거티브, 악의적인 흑색선전은 "정치권 최악의 구태"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이번 기회에 만약 그런 (네거티브)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입증하라고 청원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에 쏠린 국회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는 동안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 생방송을 인터넷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안철수 '대선자금' 펀드 발행하나

560억 가량 선거비용 투명성 제고 등 '공정적'

장하는 펀드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15% 이상의 득표율만 올리면 선거비용 대부분을 보전 받을 수 있는데 대선 비용의 투명성 확보와 지지층 확산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에게 출마한 유시민 후보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 후보가 펀드 발행을 통해 선거 비용을 충당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대선 비용을 펀드를 통해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보안업체 '안랩'의 최대 주주인 안 후보가 주식 매각 등 사재를

털어 마련할 수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국민 대상의 '선거 펀드'를 조성하는 쪽이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정치 교체'라는 국민적 여망을 꺼안은 '시민후보'의 면모와 어울림뿐 아니라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낸다면 지지층 확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 후보와 문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면 상황은 애매해진다.

후보 단일화에서 패배한 후보는 펀드에서 지출한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당에서 확보한 자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지만 안 후보의 경우, 후보 단일화에서 패배한다면 펀드로 모은 대선 자금에서 지출된 비용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철수에 쏠린 국회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는 동안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 생방송을 인터넷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잇단 측근비리 박근혜 '휘청'

'금품요구' 녹취록 송영선 전의원 제명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휘청거리고 있다. 대권가도에서 악재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권행보에 나선지 20일로 한 달을 맞는 박 후보는 '국민대통합'을 내세운 출발시점에서는 가벼운 발걸음이었으나 유신·인혁당 사건 등 역사인식 문제로 논란을 빚고 측근 비리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무엇보다 잇단 측근 비리의혹이 박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박근혜 경선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홍사덕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데 이어 이날 송영선 전 의원이 박 후보를 거론하며 금품을 요구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날 한겨레가 입수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송 전 의원은 지난 4·11 총선에서 낙선한 후 사업가 A씨를 만나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필요하다"는 요지로 1억50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송 전 의원이 당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지만 줄곧 친박(친박근혜)계였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4·11 총선 공천(경기 남양주갑)을 받았다는 점에서 후폭풍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박 후보의 '용인술'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고, 고강도 정치쇄신에 대한 박 후보의 진정성 역시 의심받을 수 있다.

한편 새누리당 정치쇄신포부와 윤리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연석회의를 개최, "언론에 나온 것만으로도 당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송 전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더 큰 세상, 깊은 감동의 서비스

다와옥션

www.dawauction.co.kr

다와옥션 부동산 경매학원

호남유일의 정통 경매학원! 불만족시 수강료 전액환불!

실적기본반 : 매주 수요일

오전 : 10시 30분/오후 : 저녁7시 (3개월 16주 과정 25만원)

강사 : 이 정석 교수(저지직강)

목요특강 : 매주 목요일

오후 : 7시(교육참가시 확인요망) (교재비포함 수강료는 1-2만원)

과목 : 세무,민법,부동산정책,기타

기본경매와 보수교육

◎수시모집중(기수별 선착순 30명)

◎국내유명강사 초청 특강(강좌외)

문의 062-352-8589 (010-8004-6767)

남구 칠산동 돌고개역 1번 출구 신한은행 4층(구,전남경찰청 4거리)

이지공인중개사

(금매)광주북구 오치동 아파트 밀집지역내 5층상가(대지)666, 건평 470p,5층은 주택)매가 17억(보용,6억 포함), 월수940만

임야,토지,전답

- ▶광주 동구 선교동 뽕배추단지 대지1014평(3353㎡)사정상 금매 대로 35m 도로접합, 투자가치 높음, 매가121억
- ▶화순군 이양면 초방리 산14-1임야 0177.727㎡(23,512평) 매가 평당 5천원
- ▶광주 서구 매월동 자연녹지 46,596㎡(1,412평)매가평당100만
- ▶나주시 문평면 잡종지 6차선도로 450m 접합 15,638㎡(4,730평)매가 평당20만원
- ▶곡성군 삼기면 월경리 임야 5만 3천평, 평당1만원 절터 및 연수원 부지적합

기타물건 다양보유

- ▶광주 서구 매월동 공구상가부근 대지8,433㎡(2,550평)매가평당90만
- ▶장성 서삼면 대곡리 대528평(계회관리지역 도로여건중음)
- ▶화순 동면 서성리 호수부근 전원주택 펜션부지(전망 아주중음)대 210평 매가 평당 70만
- ▶무안군 운남면 연리 계회관리지역 2700평 2차선 도로120m접,지 대늘음 매가평당15만
- ▶장성 남면 2중주거지역 대지660㎡(200평)평당50만 참고주택공장적합

매매,교환(토지,상가,임대)

- ▶장성 남면 2중주거지역 대지660㎡(200평)평당50만 참고주택공장적합
- ▶영광군 자동차 정비공장 대지570평 건평300평 20년 운영 자동차 검사장 등 매매 6억(용지 1억5천 포함)
- ▶상가주택등
- ▶장성 북하면 익수리 백암사입구 모델 및 시坪 대800평 현성중음 매가17억
- ▶서구월정동 연주시거리부근 상가후배 후주거지역 대800평,건148평 보7천만 원540만 매가
- ▶서구 풍암동 상암지역 최고상권 대121평 건524평,보1억8천만,월수1150만,매18억5천만 지하1 지상5층
- ▶광산구 흑석동 대로변 상가 매가 22억(용,보5억포함)월수익1400만
- ▶동구대인동 대로변 시거리코너상가 매가12억5천만(용,보5억2천포함)월수익1,100만

전화 : 062-268-2834
HP : 010-6460-2834

랜드피아 공인중개사

상가 임대

각화동 홀플러스스킨

병의원, 사무실 적합

- * 4~5층 각 130평
- * 6층 110평

보5천 / 월200만

- * 지하 140평

(임대가 및 조건조정가능)

수익성 부동산매매

랜드피아오피스텔 매매

- * 15평~29평

9~12% 높은수익률

치평동 근린상가 매매

- * 매가129억~100억대

물건다양 보유

- 8%~10% 수익률

010-9731-8949 (치평동랜드피아 O/P 1층)

경매투자 부실채권 특수물건

경매상담

- 1.경매 배우면서 수익내실분
- 2.특수물건만 전문 취급
- 3.NPL 매입/투자비용 전수
- 4.단독/공동투자 가능
- 5.교육/임대비용 회비 550만원

자본주 모심 / 10억이상

친절상담 H.010-3605-5000

(주)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